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www.kmi.re.kr
발행일 2023. 9. 25 편집&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팩스 051) 797-4810

동향
2023.9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1. 국내 항만 주요 동향 02
2. 국외 항만 주요 동향 12
3.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20

국내 항만 주요 동향

❶ 부산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모집
❷ 인천항, 베트남과 신규 컨테이너항로 개설
❸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추진

국외 항만 주요 동향

❶ 중국, 페루 항만 건설 프로젝트 1단계 '24년말 완공 예정
❷ 파나마운하 낮은 수위에 따른 선박 통행 제한 '24년까지 지속 전망
❸ 2M, 10월 초 대규모 임시결항(Blank Sailing) 예정

품목 및 산업 주요 동향

❶ 컨테이너, 전세계 물동량 정체
❷ 고철, '22년 전세계 교역량 전년 대비 14.9% 감소
❸ 국내 석유화학 4사, 석유화학공장 가동률 지속 감소

항만과 산업은 최신 국내외 항만물동량과 산업동향을 월 2회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657) 또는 이메일(pdac@kmi.re.kr)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PDAC 항만수요예측센터 Port Demand Analysis Center

1. 국내 항만 동향

1) 부산항

❶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모집[1)]

» 부산항만공사(BPA)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부산항 신항 서'컨' 1단계 항만배후단지 입주기업을 모집함

- 서'컨' 배후부지는 '19년 웅동 1단계 4차 부지 이후 약 4년만에 공급되는 항만배후단지로, 총 면적은 약 200,289만 ㎡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조성 이래 단일 면적 기준 최대 규모의 부지공급임
- BPA는 해당 부지를 125,720만 ㎡, 74,568만 ㎡의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 각각의 입주업체를 선정할 예정임

» 입주업체 모집은 공개경쟁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신청업체들의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총 70점 이상의 고득점자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할 계획임

- 사업계획서의 평가는 사업능력, 외항화물 및 부가가치 물류 실적과 계획, 고용실적 및 계획, 안전사고예방 및 대응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예정임
- 이와 관련하여 BPA는 9월 20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입찰설명회를 진행함

» BPA는 이번 입주업체 모집 공고에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량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통해 부산항이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의 육성을 기대함

❷ BPA, 항만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항만들과 성과 공유[2)]

» BPA는 지난 9월 7~8일 벨기에 브뤼헤와 앤트워프에서 열린 '제9회 체인포트(chainPORT)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부산항의 디지털 혁신성과 등을 공유함

- 체인포트는 해운·항만 분야의 디지털화를 위해 세계 주요 항만들이 정보 및 데이터를 공유하고 항만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16년에 창설된 항만공사 간 협의체로 10여개의 항만이 소속되어 있음
- 부산항은 해당 정기총회에서 '항만물류통합플랫폼(체인포탈)' 내 환적운송시스템(TSS) 및 항만트럭예약시스템(VBS) 활성화에 따른 물류 흐름 개선 효과를 공유함
- BPA는 해당 시스템의 시범운영으로 화물차 대기 시간 감소, 화물차 운송 복화율 3배 증가 등 항만 운영 효율성을 개선함

» 또한, 본 총회에서는 최근 가장 큰 이슈인 환경 규제와 관련하여 대형화주 및 천연가스 공급업체 등 분야별 전문가가 항만의 탈탄소화 추진 과정 및 사례 등을 공유하기도 함

» BPA는 향후에도 글로벌 항만들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부산항의 디지털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 밝힘

1)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9.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816&idx=30676(2023.09.14. 검색)

2) 부산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9.13.), https://www.busanpa.com/kor/Board.do?mode=view&mCode=MN1816&idx=30675(2023.09.14. 검색)

2) 인천항

❶ 인천항~베트남 간 컨테이너 신규 항로 개설[3)]

» 인천항만공사(IPA)에 따르면 지난 9월 10일부터 인천항~부산항~울산항~베트남 하이퐁항~중국 서커우항을 기항하는 컨테이너 신규 항로인 KHP가 개설됨

- '23년도에 5번째로 개설된 컨테이너 항로 KHP로 인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정기서비스는 총 71개를 기록, 역대 최다항로 기록을 경신함
- 인천항과 베트남을 오가는 신규항로는 국적선사인 고려해운과 남성해운이 주 1항차로 운영할 계획임
- '22년도 인천항~하이퐁항 간 컨테이너 실적은 20만 5천 TEU로 신규 항로 추가 개설에 따라 약 4만TEU 물동량 증가가 예상됨

❷ IPA, 중국 최대 크루즈 서밋에서 포트세일즈 수행[4)]

» IPA는 지난 8월말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중국 국제크루즈 서밋(China International Cruise Summit)에 참가하여 중국 크루즈 선사 및 항만기관을 대상으로 포트세일즈를 수행함

- 인천항의 크루즈 터미널 홍보를 위해 IPA는 인천공항과 연계되는 플라이 앤 클루즈(Fly & Cruise)* 관광상품, 크루즈 부두 시설 등을 홍보하였음

  * 비행기로 크루즈 모항지까지 이동한 후 크루즈선으로 갈아타는 복합 관광상품

- IPA는 크루즈 항로 개설은 장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와 같은 선제적인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한-중 국제여객 재개에 이어 크루즈 선도 인천항에 기항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임

3)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9.10.),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5351&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1(2023.9.17.검색)

4) 인천항만공사 보도자료(2023.8.29.), https://www.icpa.or.kr/article/view.do?articleKey=25278&searchSelect=title&boardKey=217&menuKey=400&currentPageNo=2(2023.9.17. 검색)

3) 여수·광양항

❶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2030 여수·광양항 스마트항만」추진방안 제시[5)]

»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8월 19일 창사 12주년을 맞아 「2030 여수·광양항 스마트항만 추진방안」을 발표함

- 추진방안으로 세계 최고수준 자동화부두 구축, 무재해·탄소중립 항만 달성, 항만운영 효율성·편의성 제고, 항만인프라 건설기술 혁신, 지속가능한 신성장 동력확보 등 5개 추진과제를 선정함
- 또한 추진과제에 따른 세부과제 핵심 키워드 10개를 제시하고, '30년까지 추진되는 24건의 세부 실행과제를 통해 스마트항만 구축에 대한 구체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임
- YGPA는 4대 경영목표 중 하나인 '한국형 스마트항만 구축'의 이행과 더불어 120대 국정과제, 균형발전 지역공약, 4차 항만기본계획 등의 국가비전과 정책에 부합하도록 여수·광양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힘

5) 여수광양항만공사 보도자료 (2023.08.18.), https://www.ygpa.or.kr/kr/ygpa/public_corporation_news/public_corporation_news/?boardId=bbs_0000000000000213&mode=view&cntId=1506&category=(2023.09.06. 검색)

4) 울산항

❶ 항만시설사용료 인상 추진[6)]

» 울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는 '15년 이후 8년째 동결된 상황으로 인천항, 부산항 대비 낮은 요율을 적용하고 있음

-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이나 화물 등이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납부하게 되는 사용료이며,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등이 해당됨
- 울산항은 광양항 등과 함께 '기타항'으로 분류되어 부산항과 인천항 대비 낮은 요율을 적용받아 항만재투자에 애로를 겪는 등 경쟁력 저하 우려가 발생함
-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는 지난 '96년 제정된 항만시설사용료 체계에 따라 부산항과 인천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만들을 '기타항'으로 분류함
- 항만별 화물입출항료는 부산항 외항선의 일반화물 입항료는 1톤당 341원, 인천항은 306원, 기타항은 194원이며, 창고 및 야적장 사용료는 부산항 및 인천항 창고(상옥)의 1개월간 외항화물 사용료는 1㎡당 1,288원, 기타항은 1,029원임

» 울산항 항만시설사용료를 부산항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음

- 항만시설사용료는 부산항, 인천항, 기타항 순으로 높은데, 울산항과 광양항의 물동량이 인천항을 뛰어넘으면서 항만시설사용료 개편이 필요함
- 울산항만공사(UPA)는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와 함께 항만시설사용료를 부산항, 인천항과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기로 함
- 작년 UPA의 항만시설사용료 수익은 약 1,115억 원으로 울산항의 항만시설사용료가 증액될 경우, 항만 재투자에 따른 항세확장이 기대됨

6) 경상일보(2023.08.29.), https://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8565(2023.09.15. 검색)

5) 평택·당진항

❶ 경기평택항만공사, 일본 오사카항만국과 업무협약 체결[7)]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 8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오사카항만국과 양 항만 이용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경기평택항만공사가 평택항 오사카 설명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것에 이어, 양 항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됨
- 현재 평택항에는 팬스타라인닷컴이 주 1항차 평택과 일본 오사카와 나고야를 오가는 직항로를 운영 중임
-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항만 간 물적 인적 교류 추진', '항만의 관리운영에 관한 정보 교환', '양 항만 비즈니스 창출 기업에 대한 교류 촉진', '기타 양 기관이 협의한 사항' 등 상호 양 항만 이용 촉진에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함
- 평택·당진항은 중국과의 최단거리 입지를 장점으로 대(對)중국 교역비율을 높이며 성장하였지만, 동남아와 일본 등 신규항로의 다변화를 통한 물동량 증대와 국제 무역항으로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
- 한편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오는 10월 일산 킨텍스에서 평택항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신규화물 유치 및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속 실시할 계획임

7) 경기평택항만공사 보도자료(2023.09.08.), https://www.gppc.or.kr/cms/article/view.do?postNo=70&pageId=K006003001(2023.09.14. 검색)

6) 포항항

❶ 포항철강산업단지, 스마트 그린산단으로 전환[8)]

» 경상북도는 올해부터 '27년까지 총사업비 2,992억 원을 투입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그린 철강 기반 포항 스마트 그린산단'을 비전으로 14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 올해 하반기에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를 복구하고 자연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철강산업단지 기반 시설 강화 사업과 자연 재난 및 환경오염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효율적이며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기 위한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실시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 하천 수위 및 강수 측정 장비, 대기환경 측정시스템, 지능형 CCTV, 교통환경 모니터링 장비 등을 설치하고 관제센터와 통합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임
- 경상북도는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후속 사업으로 저탄소 철강 소재·부품·장비 제조혁신 기반 구축과 공정 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설치 등을 계획 중임

8) 철강금속신문(2023.09.15.), http://www.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23268(2023.09.15. 검색)

7) 동해·묵호항

❶ 한국-러시아 컨테이너 국제항로 취항 및 시범운항[9)]

» '23년 9월 17일 동해항은 컨테이너선 국제정기항로가 첫 취항했으며 파나마 국정의 컨테이너선이 동해항에 입항함

- 9월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항을 출항한 동영해운의 파나마 국적 전용선인 Xiang Ren호가 공컨테이너 65TEU를 적재하여 17일 동해항 서부두에 접안했으며 공컨테이너를 동해항에서 하역한 후 부산항으로 출항함
- 이번 운항은 시범운항으로 빈 컨테이너를 실은 선박이 입항했으나 앞으로 목재펠릿과 수산물을 수입하고 자동차 및 잡화를 수출하기 위해 정식 취항할 예정임
- 이번에 취항한 선박은 8,000톤급(DWT) 규모의 최대 적재량 400TEU, 길이 121m의 컨테이너 전용선으로 앞으로 약 월 3~4회, 2개월간 시범운항을 마친 뒤 '23년 11월부터 정해진 일정에 따라 블라디보스톡항~동해항~부산항 경로를 주 1항차 운항할 예정임

9) 강원도민일보(2023.09.17.),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04104(2023.09.17. 검색)

8) 목포항

❶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가을철 해양사고 예방대책 시행[10)]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기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가을철(9월~11월)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힘

-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추석 연휴 기간 해상교통량과 여객선 이용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관기관 합동으로 연안여객선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함

  * (구성) 목포지방해양수산청, KOMSA, 해운조합, (기간) 9.27 ~ 10.3

- 또한, 이상기후 영향으로 가을철 슈퍼태풍과 많은 비가 전망됨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객선터미널, 항만공사현장, 항로표지 등 다중이용시설 및 항만시설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점검도 실시할 예정임
- 아울러, 가을철에 급증하는 침몰·침수사고에 대비해 선박종사자들에게 선박관리 및 기초안전수칙 준수 등 각별한 주의를 당부할 예정임

10)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09.13.), https://mokpo.mof.go.kr/ko/board.do?menuIdx=1316&bbsIdx=100199(2023.09.14. 검색)

❷ 목포해양경찰서, 최신예 100톤급 형사기동정 '125정' 취역식 개최[11)]

»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9일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최신예 형사기동정인 125정의 취역식을 개최함

11) 뉴시스(2023.09.10.),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30910_0002444383(2023.09.14. 검색)

- 신규 취역한 125정은 지난 '20년 8월에 착공해 올해 7월 준공을 마친 100톤급 형사기동정이며, 길이 31.8m, 폭 6.1m로 디젤엔진 2대를 장착해 최대속력 40노트(시속 74㎞)로 고속운항이 가능함
- 또한 지난 '99년도에 건조한 기존 25t급 형사기동정(125정)을 대신해 연안 해역에서 해양범죄 예방·단속 등 해상치안을 지키는 임무를 수행할 예정임
- 목포해양경찰서는 이번 최신예 형사기동정 배치로 빈틈없는 해양주권 수호와 해상치안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9) 대산항

❶ 대산지방해양수산청, 사설항로표지 121기 운영·관리실태 점검 실시[12)]

» 충남 해역에 설치·운영 중인 사설항로표지에 대한 관리실태 지도점검을 9월 11일부터 10주간 실시할 계획임

- 사설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장관 외, 사업 또는 업무 사용을 위해 자가 설치한 항로표지임
-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에는 시설물 보호, 해상공사표시 등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48개사 259기의 사설항로표지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점검 대상은 대전지방기상청 등 20개사 121기임
- 이번 점검을 통해 사설항로표지가 국유표지와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며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준수 여부, 시설물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히 보완하도록 권고할 예정임

12) 대산지방해양수산청 보도자료(2023.09.14.), https://daesan.mof.go.kr/ko/board.do?menuIdx=3019&bbsIdx=100233(2023.09.15. 검색)

10) 군산항

❶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군산항 모래부두 시설사용 허가[13)]

»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지난 8월 28일부터 ㈜진산에게 군산항 모래부두에 대한 항만시설 사용을 허가함

- '12년에 준공된 모래부두는 3천 톤급 1개 선석으로 '21년 ㈜금석해운으로부터 목포조선공업 ㈜에 매각되었으나 모래부두 운영 여건을 갖추지 않아 다시 ㈜진산으로 매각됨
- 모래 하역 및 세척시설을 취득하여 모래부두 운영 여건을 갖춘 ㈜진산이 '24년 8월 말까지 부두를 운영하는 사용료는 연간 약 3천만 원임

13) 전북일보 (2023.9.3.), https://www.jjan.kr/article/20230903580016(2023.9.17 검색)

❷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23년 연말부터 운영 예정[14)]

» 서해안권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 시설인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이 '23년 11월부터 운영될 계획임

- 군산항과 중국 스다오항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통관시키는 지정장치장으로 운영될 예정임
- 그간 해상특송화물이 큰 폭으로 증가해왔으나 군산항에 통관시설이 없어 '22년도 군산항으로 반입된 180여만 건의 특송화물을 인천항 또는 평택·당진항 통관장으로 운송해 화주들의 물류처리 시간이 증가한 바 있음

14) KBS 뉴스 (2023.08.31.),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762247&ref=A(2023.09.17 검색)

11) 마산항

❶ 마산지방해양수산청(마산청), 제23회 국제연안정화의 날 정화활동 실시[15)]

» 9월 11일 마산청은 제23회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기념하고 해양쓰레기 발생량 저감 및 깨끗하고 안정한 환경조성을 위해 마산항 인근 해안변의 정화활동을 실시함

- 국제연안정화의 날은 9월 셋째주 토요일 전후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전 지구적 해양 정화 행사임
- 이번 정화활동에는 마산청, 창원해경, 마산합포구청, 마산소방서 및 해양환경공단 등 40여명이 참여해 약 4톤의 쓰레기를 수거함
- 특히 올해는 집중 호우 및 태풍 카눈으로 인해 전년 대비 해양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해양쓰레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관계기관의 합동을 통해 수거 활동을 진행함
- 마산항은 최근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해양 생태계 보전과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지속적으로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정화활동을 실시할 계획을 밝힘

15) 마산지방해양수산청(2023.09.11.), https://masan.mof.go.kr/ko/board.do?menuIdx=2311&bbsIdx=100169(2023.09.12. 검색)

2. 국외 항만 동향

1) 중국

❶ 중국 정부가 지원하는 페루 항만 프로젝트 1단계 '24년 말 완공 예정[16)]

» 중국의 중남미 최대 항만 프로젝트인 찬카이항 개발 1단계가 내년 말 완공을 앞두고 해당 항만은 남미에서 아시아로 가는 관문항이 될 것이라 밝힘

- 중국의 일대일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찬카이항 개발은 중국 국영기업 COSCO Shipping이 대주주(60% 지분 보유)로 참여하고 있으며 총 13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임
- 깊은 수심을 확보하여 남미의 다른 지역에서 접안이 불가능한 대형 컨테이너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찬카이항 개발을 통해 남미에서 중국으로 가는 직항로를 개설할 예정이며, 이는 기존 남미에서 중국으로 가는 선박이 멕시코 또는 미국을 기항하여 45일 이상 소요되는 시간 대비 약 10일을 단축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중국은 수년 전부터 전 세계 항만 인프라 및 물류에 대해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미국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음

-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에 따르면 '20년 7월 기준 중국 자본에 의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 세계 항만이 적어도 95개가 있다고 추정함
- 이러한 항만 가운데 중국 국영기업인 진출한 항만은 전 세계 37개 항만으로 이는 상업적인 관점에서 우려를 자아내며, 찬카이항 역시 중국 최대 해운기업인 COSCO를 위한 전략적 투자로 판단된다고 밝힘

❸ '23년 8월 무역 감소폭 둔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기 불확실성 존재[17)]

» 중국의 '23년 8월 수출입 감소폭이 당초 예상 대비 둔화되면서 안정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중국의 8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하여 당초 예상 감소율인 9.2% 대비 둔화, 수입 역시 같은 기간 7.3% 감소하여 예상 감소율인 9.0% 대비 낮은 감소율을 기록함
- 또한 7월에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8월에는 무역 감소폭이 크게 완화됨

» 그러나 여전히 해외 수요 감소와 국내 소비 위축이라는 두 가지 큰 압력으로 인해 중국 정부의 연간 성장률은 '23년 초 목표치인 5%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음

16) AP News(2023.08.23.), https://apnews.com/article/peru-chancay-china-port-construction-d13e8e8fe19289a6ab97628f708bc671(2023.09.14 검색)

17) REUTERS(2023.09.07.),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august-exports-imports-fall-less-than-expected-2023-09-07/(2023.09.14 검색)

- 이로 인해 중국 전문가들은 올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으며, 무역 데이터가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무역이 위축되어 있어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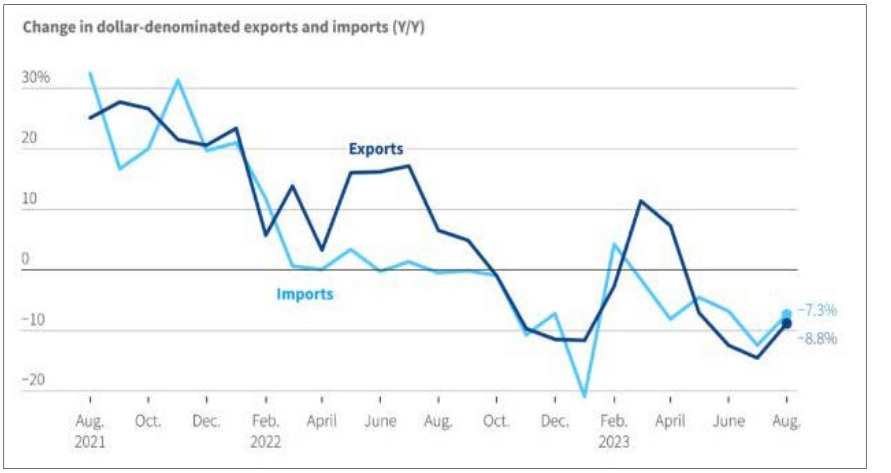
» 이에 중국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택 구매자들을 위해 대출 규제 완화하는 등 일련의 조치 등을 발표함

- 그러나 전문가들은 노동 시장의 회복이 둔화세에 있고, 가계 소득 기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러한 조치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함

» 한편, 세계 각국 정부는 중국 의존도가 높은 수출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우려하고 있음

- 대부분의 수입이 감소한 가운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지난달 대비 약 20% 정도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 동남아, 호주 역시 교역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음
- 반면, 일본으로부터 수입이 전년 대비 약 17% 감소하면서, 일본 정책입안자들은 중국의 경제 둔화가 일본의 경기회복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중국의 전년 대비 수출입 증가율



자료 : REUTERS,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chinas-august-exports-imports-fall-less-than-expected-2023-09-07/(2023.09.14 검색)

2) 아시아

❶ 베트남, '30년까지 내륙컨테이너 기지(Inland Container Depots, ICD) 신규 건설에 17억 달러 예산 투입 예정[18]

» 최근 베트남 정부는 컨테이너 수출입 물량 증가 전망에 따라 2030년까지 최대 17억 달러를 투자하여 ICD를 신규 건설하는 개발계획을 승인함

- 현재 베트남 ICD의 처리능력은 연간 1,190만 TEU로 '30년에는 1,710만 TEU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정부는 신규 ICD 개발을 통해 대도시와 주요항만의 혼잡을 완화시키고 북쪽의 하이퐁항, 남쪽의 호치민시 등과 연계 개발한다는 2차 목표도 수립함
- 베트남은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중국뿐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로 생산기지를 다각화하려는 전략의 주요 수혜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이에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건설 추진은 증가하는 수출입 화주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물류 비용 절감 및 화물 보관기관을 단축하여 베트남 항만의 화물처리 능력 증진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❷ 인도 아다니, 코와 홀딩스와 일본의 그린수소 시장 진출[19]

» 인도 아다니 그룹의 자회사인 아디니 글로벌(Adani Globla Pte Ltd)은 코와홀딩스(Kowa Holdings)와 그린 암모니아, 그린 수소, 및 파생상품 판매 및 마케킹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함

- 아다니 그룹은 그린 수소 및 관련 지속가능한 파생상품을 대규모로 생산하기 위한 엔드 투 엔드 솔루션(end-to-end solution)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또한 인도 구자라트에서 그린 수소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7년부터 연간 100만 톤 규모의 그린수소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됨
- 더불어 향후 연간 300만 톤까지 생산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약 10년 동안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임
- 한편, 이번 합작법인은 일본, 대만, 하와이 등에서 제품 판매 및 마케팅에 주력할 예정임

❸ NYK, 일본 최초 암모니아 벙커링붐(Bunkering Boom) 계획[20]

» NYK는 일본 액체용 화물처리장치 제조업체인 TBG와 선박 간 암모니아 연료 이송을 위한 분배장치 개발을 위해 예비협약을 체결함

- 벙커링붐은 단단한 파이프와 호스로 구성되어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2대의 선박을 연결하는 장치로써, 매우 견고하며 유연하게 방향 전환이 가능해 사용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음
- NYK와 TBG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선박의 벙커링붐이 풀리지 않도록 하는 등 암모니아 연료 공급시 발생가능한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예정임

18) theloadstar(2023.09.11.), https://theloadstar.com/vietnam-approves-1-7bn-plan-for-new-inland-container-depots/(2023.09.18. 검색)

19) Port Technology(2023.09.1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adani-kowa-holdings-market-green-hydrogen-in-japan/(2023.09.14. 검색)

20) Port Technology(2023.08.17.),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nyk-plans-japans-first-ammonia-bunkering-boom/(2023.09.14. 검색)

3) 미주

❶ 미국 동부·멕시코만 항만, 인프라 확충[21][22][23]

» 서배너(Savannah)항은 코네크레인즈(Konecranes)의 전기 Super Post-Panamax급 STS(Ship To Shore) 크레인 4대를 추가함

- 1부두(Berth 1)을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완료되면서 신규 설치한 크레인은 미 동안을 기항하는 최대 선형의 컨테이너선에게도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신규 도입한 크레인으로 Garden City 터미널의 생산성이 25% 향상되었으며, 연간 하역능력은 150만 TEU로 늘어남
- 이번에 도입된 장비는 미래의 공급망 수요 충족을 위한 조지아 항만청(GPA)의 19억 달러 규모 인프라 업그레이드 계획의 일환이며, 향후 3년 동안 서배너항의 연간 하역 능력을 300만 TEU로 확대할 계획임

» 뉴욕-뉴저지 항만청(PANYNJ)은 터미널 확장 및 개조를 위한 수백만 달러 투자금을 확보함

- PANYNJ는 스테튼아일랜드(Staten Island)의 Howland Hook 터미널의 확장 및 개선을 위해 2~3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 항만시설 운영사로 글로벌 운송 기업인 CMA CGM 그룹과 임대 계약을 체결했으며,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확보하여 300개 이상의 일자리가 발생할 것으로 보임
- 임대 계약은 '47년까지이며, CMA CGM은 용량 추가, 인프라 개선, 업그레이드 등 부두 및 부두 인프라의 유지 관리 및 수리는 물론 수요 충족을 위한 용량 증대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됨

» 휴스턴항은 코네크레인즈의 하이브리드 RTG(Rubber-Tyred Gantry) 크레인을 주문함

- 휴스턴 항만당국은 Barbours Cut 컨테이너 터미널 배치를 위해 코네크레인의 하이브리드 RTG(Rubber-Tyred Gantry) 크레인 5대를 주문했으며, 크레인은 '25년 초에 인도될 예정임
- 휴스턴항에는 현재 116개의 Konecranes RTG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 26개는 하이브리드 RTG이며, 지난 10월 및 이번 주문 건으로 '25년 초에는 하이브리트 RTG 규모를 57대까지 확대할 계획임
- 휴스턴항이 주문한 코네크레인의 하이브리드 RTG에는 향상된 리튬 이온 배터리 기술 및 배터리의 충전 수준과 일반적인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21) Port Technology(2023.08.29.),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savannah-obtains-konecranes-four-new-electric-sts-cranes/(2023.09.15. 검색)

22) Port Technology(2023.09.13.),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ynj-secures-multi-million-dollar-terminal-investment/(2023.09.15. 검색)

23) Port Technology(2023.09.1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houston-purchases-five-konecranes-rtgs/(2023.09.15. 검색)

❷ 산 페드로 베이(San Pedro Bay) 컨테이너 장치기간, 7월에도 일정하게 유지[24)]

» 산 페드로 베이를 거쳐가는 컨테이너의 장치기간은 2.9일로 전월과 동일함

- 태평양 상선협회(PMSA: Pacific Merchant Shipping Association)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7월 컨테이너 장치기간은 6월 평균인 2.9일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남
- 평균 3일의 장치기간은 일반적인 범위 내에 해당되며, 산 페드로 베이의 공급망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나타냄
- 철송 화물의 7월 터미널 평균 장치기간은 4.1일이며, 전월 4일과 비슷한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됨
- PMSA에 따르면 지역 컨테이너의 10.2%가 5일 이상 머물렀고, 철송 컨테이너의 24%는 5일 이상 장치되었음
- '22년 3월, LA 및 LB항은 트럭으로 이동하는 수출입 화물 컨테이너에 대해 TEU당 10달러의 '컨테이너 장치 요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한바 있으나 요금부과는 실행되지 않았으며, '23년 1월 해당 요금제도를 폐지함

❸ 파나마운하의 낮은 수위에 따른 선박 통행 제한 '24년까지 지속 전망[25)]

» 파나마 지역의 우기가 끝나감에도 운하의 수위가 회복되지 않아, 올해 남은 기간과 '24년 내내 운송 및 선박 흘수에 대한 일일 제한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파나마운하 구간은 50마일에 달하기 때문에 운하를 통과하는 선박 한 척당 약 5,100만 갤런의 물이 사용됨
- 운하에 물을 공급하는 가툰 호수는 보통 11월 우기가 끝나면 호수의 수위가 27m 안팎까지 올라가다가 4월 건기가 끝난 뒤 26m 아래로 약간 낮아지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 운하의 수위가 최근 몇 년간 26.6m에서 9월 24.3m로 낮아짐
- 가뭄에 따른 운항제한으로 인해 세계 무역의 약 5%가 거쳐가는 파나마운하의 입구는 정체가 발생했으며,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기간을 앞두고 심각해질 전망임
-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운하의 병목 현상이 약 20% 완화되었으나 7월 운송 대기 시간은 역으로 증가했으며, 선사 및 화주들은 인도 지연을 피하기 위한 대체 항로 선택이 증가함
- 전문가들은 '24년이 더 건조한 시기가 될 수 있어 해상 무역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파나마 운하의 전례 없는 수준의 가뭄으로 인해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함

24) Port Technology(2023.08.24.),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san-pedro-bay-container-dwell-time-remains-consistent-in-july/(2023.09.15. 검색)

25) Port Technology(2023.09.06.),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anama-canal-water-woes-set-to-continue-into-2024-experts-predict/(2023.09.15.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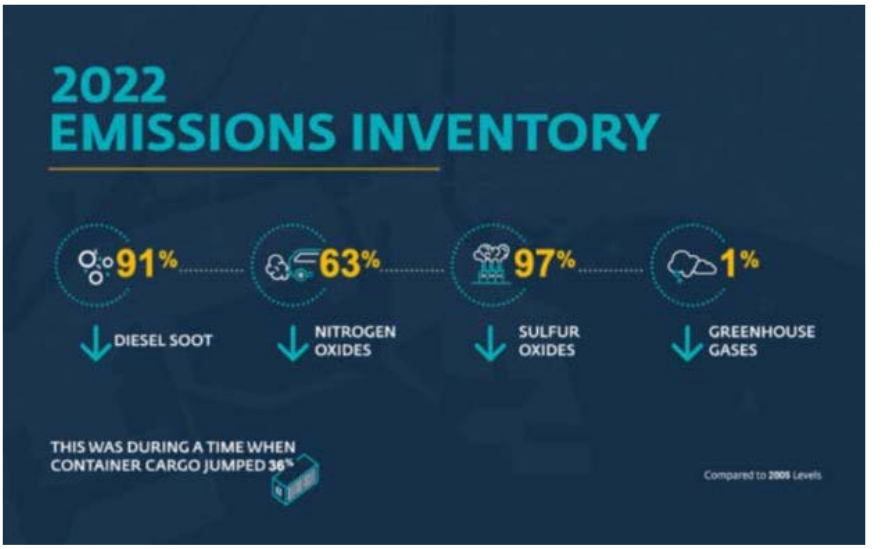
❹ 롱비치(LB)항 친환경 목표, 예정보다 빠르게 달성[26)]

» '22년 롱비치항의 대기 오염 배출량은 크게 감소하여 기존 계획보다 1년 앞서 산 페드로 베이의 모든 CAAP(Ports Clean Air Action Plan) 목표를 달성함

- 매년 진척 상황은 CAAP가 시행되기 전인 '05년과 비교하게 되는데, '22년은 '05년 대비 디젤 입자 91% 감소, 질소 산화물 63% 감소, 황 산화물 97% 감소했으며, 화물 컨테이너 양은 36% 증가함
- '22년에는 배출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혼잡이 해소되면서 선박 대기가 줄어들고 화물 항속 장비의 19%가 배출제로를 달성했으며, 'Clean Truck Program'과 차량전환 등이 배출제로를 달성함
- '23년 7월에는 캘리포니아 주 교통기관(California State Transportation Agency)이 롱비치항에 3억 8,335만 달러의 보조금을 발표하여 시설 건설 및 깨끗한 공기 기술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함

26) Port Technology(2023.09.12.),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long-beach-hits-green-targets-ahead-of-schedule/(2023.09.15. 검색)

롱비치항의 2022년 녹색목표 성과



자료: Port Technology(2023.09.12.),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port-of-long-beach-hits-green-targets-ahead-of-schedule/(2023.09.15. 검색)

4) 유럽

❶ 노르웨이 Yara, 독일 MPC 등 4개 기관 '실크 얼라이언스' 합류[27]

» 에너지 기업 Yara Clean Ammonia, 선주 기업 MPC Container Ships, 메탄올협회, 싱가포르국립대학 해사연구센터 등 4개 기관이 녹색항로 클러스터인 실크 얼라이언스에 신규 합류함

- '22년 5월 로이드선급(Lloyd's Register)과 싱가포르 항만청을 중심으로 출범한 실크 얼라이언스는 주로 싱가포르항에서 벙커링하며 인도양과 태평양을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 탈탄소화 실현을 목적으로 협력함
- '특히, Yara Clean Ammonia와 메탄올협회의 합류로 실크 얼라이언스는 탄소배출 제로 운송에 필요한 연료 인프라 시설과 및 시설 용량 개발에 대한 연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❷ 2M, 10월 초 대규모 임시결항(Blank Sailing) 예정[28]

» 머스크와 MSC는 수요 감소가 예상되는 '골든위크' 기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의 컨테이너 노선 서비스를 취소함

- 골든위크는 9월 말~10월 초 중국 국경절-중추절 연휴로, 중국 전역의 공장이 가동을 중지하고 직원들이 일주일간의 휴가를 시작함에 따라 해운 수요가 급감하는 기간임
- 9월 5일 MSC는 37주차(9월 11일~17일)부터 42주차(10월 16일~22일)까지 아시아-북유럽 11개 노선과 39주차(9월 25일~10월 1일)부터 41주차(10월 9월~15일) 아시아-지중해 5개 노선 및 태평양 노선 6개, 그 외 지역 2개 항로의 선박운항을 취소한다고 발표함
- 머스크 또한 39주차에 아시아-북유럽 항로 5개 노선, 40주차와 41주차에 아시아-지중해 항로의 노선 각각 1개씩의 선박운항을 취소할 것으로 발표함
- 9월 14일 두 선사는 29개의 항해를 추가로 취소할 것으로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시아-북유럽 노선의 결항 용량(blanked capacity) 비율은 19.9%를 기록했고, 이는 해운업계 불황이 지속되던 '17~'19년 기간보다 높은 수준임[29]

❸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항만 통해 곡물 수출 시작[30]

» 9월 7일, 루마니아에서 열린 'Three Seas Initiative'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는 크로아티아를 통해 곡물 수출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 Three Seas Initiative는 발트해·흑해·아드리아해와 인접한 12개 국가의 협의체임
- 지난 7월, 흑해 항로를 통행하는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보장해 온 흑해곡물협정이 러시아에 의해 중단된 이후, 우크라이나는 기존 튀르키예를 통해 수출하던 항로의 대체 항로를 모색해 옴

27) Seatrade Maritime(2023.08.31.), https://www.seatrade-maritime.com/sustainability-green-technology/four-new-members-join-silk-alliance-green-corridor-initiative(2023.09.18. 검색)

28) Seatrade Maritime(2023.09.05.),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maersk-and-msc-extend-golden-week-vessel-cancellations(2023.09.18. 검색)

29) Seatrade Maritime(2023.09.14.), https://www.seatrade-maritime.com/containers/container-line-blank-sailings-surge-golden-week-period(2023.09.18. 검색)

30) Port Technology(2023.09.15.), https://www.porttechnology.org/news/ukraine-seeks-alternative-export-routes-in-croatia/(2023.09.18. 검색)

- NATO 회원국인 크로아티아는 우크라이나와 국경이 인접해 있지는 않으나,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한 곡물을 다뉴브강을 통해 유럽 내륙으로 운송, 다뉴브강과 아드리아해의 크로아티아 항만을 거쳐 지중해로 운송할 수 있음
- 우크라이나는 해당 항로가 틈새 무역로임에도 인기가 높으며, 추후 항로 확대 및 개발을 통해 전쟁 이후에도 양국 간 무역에서 중요한 통로로 활용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크로아티아 항구를 통해 수출된 우크라이나 곡물의 무역량은 공개하지 않음

5) 오세아니아

❶ 호주 멜버른항, 지속가능성 연계 대출 성사[31)]

» 멜버른항은 10개 은행의 신디케이트를 통해 475백만 달러(약 6,000억 원)의 자금을 지속가능성과 연계하여 대출을 완료함

- 대출 조건은 직접 배출량 감소(Scope 1)와 간접 배출량 감소(Scope 2), 정신건강 및 응급처치 인증 등 세 가지 지표로 평가받음
- Scope 1은 항만의 직접적인 활동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트럭 및 항만 운영 설비 등의 연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의미하며 Scope 2는 항만 운영을 위해 구매 및 소비하거나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함
- 정신 건강 및 응급처치 인증은 멜버른항의 직원들에게 정신 건강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해당 대출은 멜버른항이 지속가능한 항만 인프라를 구축, '30년까지 Scope 1과 2 관련 배출량 넷제로(net zero)를 달성하고 전체 항만 노동자를 위한 정신 건강 및 응급처치 인증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임

31) Daily cargo news(2023.09.11.), https://www.thedcn.com.au/news/environment/port-of-melbourne-issues-sustainability-linked-loan/(2023.09.12. 검색)

6) 아프리카

❶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항, 건조 독(Dry dock) 펌프 하우스 스테이션 개통[32)]

» 더반항은 선박 수리 및 유지보수 작업시간 개선을 위한 새로운 건조 독 펌프 하우스 스테이션을 개통함

- 펌프 하우스 스테이션은 항만이나 조선소에서 선박을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건조 독의 일부로서, 물을 펌핑하여 건조 독 내부의 물을 비우는 데 사용되는 시설임
- 효율적인 펌핑 하우스 시스템은 선박의 도킹 및 언도킹 시간을 크게 줄여 항만이나 조선소의 작업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기존 더반항의 펌프 하우스 스테이션은 60년 이상 운영되어 노후화되었으며 선박 1척당 8시간의 작업시간이 필요했으나 이번 개선을 통해 작업시간을 4시간으로 줄임

32) IOL(2023.09.01.), https://www.iol.co.za/dailynews/news/port-of-durbans-dry-dock-pump-house-station-expected-to-improve-docking-and-undocking-turnaround-time-65f71fdb-6939-4ad0-b3d4-e203b9053af0(2023.09.05. 검색)

3. 품목 및 산업 동향

1) 컨테이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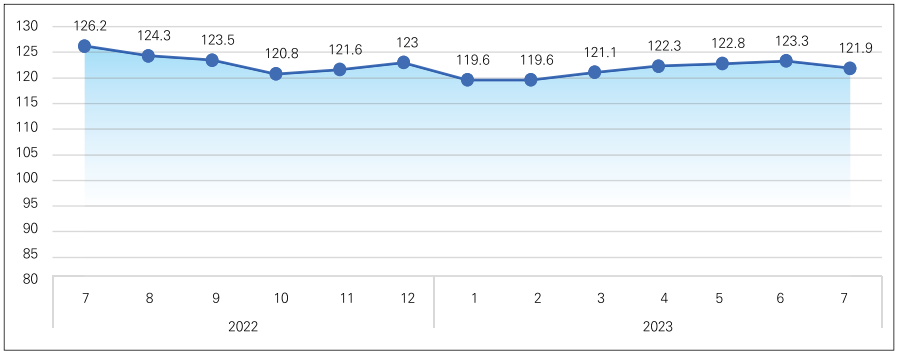
❶ '23년 7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 전년 대비 3.4% 감소[33)]

» '23년 7월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1.1% 하락하면서 '23년 2월 이후 지속된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됨

- 7월 기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의 컨테이너 물동량 둔화 영향이 반영되면서 감소세를 기록함
- 중국의 경우, 다른 지역 대비 컨테이너 처리량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작아 6월 139.4p에서 7월 137.3p로 소폭 감소함
- 반면, 유럽 항만의 경우 컨테이너 처리량이 감소하면서 전월 106.6p에서 103.8p로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 글로벌 컨테이너 처리량이 높은 에너지 가격과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3분기의 경기 침체를 의미한다고 밝힘

33)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july-2023(2023.09.14. 검색)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처리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컨테이너	126.2	124.3	123.5	120.8	121.6	123.0	119.6	119.6	121.1	122.3	122.8	123.3	121.9	-1.1	-3.4

주: 2015=100, 계절조정
자료: ISL, https://www.isl.org/en/containerindex/july-2023(2023.09.14. 검색)

❷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 성장세 여전히 정체[34)]

» 전 세계 산업 생산과 컨테이너 물동량이 3분기 초에 침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반등에 대한 올해 초 예측에 불확실성을 확대하고 있음

- 네덜란드 경제정책분석국(CPB)에 따르면 '23년 2분기 전 세계 산업생산은 전년 대비 1% 미만 증가에 그침
- 세계 교역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2%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성장둔화는 과거 전면적인 경기 침체와 연관된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힘

» 코로나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의 여행, 관광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증가와 기업들이 초과 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으로 상품에 대한 지출은 침체 상태에 빠짐

- 미국 9대 항만의 '23년 7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1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였으며, '23년 6월 주요 철도 컨테이너 화물 운송량 역시 '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일본의 경우 코로나 시기인 '20년을 제외하고 올해 7개월 동안 나리타 항공을 통해 처리된 화물량이 10년 동안 가장 적었으며, 영국 역시 '09년 경제위기, '20년 코로나 시기를 제외하고 히드로 공항을 통한 화물 운송이 최저치를 기록함

» 반면,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해제 등에 힘입어 아시아 지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주요 환적항만인 싱가포르항의 컨테이너 교역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증가함

- 싱가포르항의 '23년 7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343만 TEU로 지난해 7월 처리량인 329만TEU 대비 14만 TEU 증가함

❸ 컨테이너 반입 기간 완화 추진[35)]

» 정부는 수출업계의 물류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기간을 기존 사흘에서 닷새로 늘리는 방안을 확정함

- 코로나19로 인해 3일로 제한된 부산항 컨테이너 반입 제한 일수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제한 일수를 늘리자는 의견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하면서, 양 부처간 협의 끝에 반입기간이 닷새로 늘어날 전망임
- 해양수산부는 항만의 터미널 운영사들과의 협의를 거쳐 해당 기간을 합의하였으며 조만간 발표 예정임

34) REUTERS(2023.09.08.), https://www.reuters.com/markets/europe/global-container-freight-still-stalled-2023-09-07/(2023.09.14 검색)

35) 뉴시스(2023.09.10.),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30909_0002444122(2023.09.14 검색)

» 코로나19 이전까지는 접안일 기준 평균 10일 전후 기간 반입이 허용되었으나, '21년 물류대란으로 인해 기준일이 3일로 줄어들면서 수출기업의 물류비가 증가함

- 물류대란 당시 부두 내 과도한 혼잡도와 이로 인한 안전사고 증가 등을 이유로 반입 기간을 제한함
- 이로 인해 수출기업들은 야적장 보관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면서 물류비가 증가함
- 당초 부두 내 혼잡도가 완화되면 해당 기한을 원상복구 하기로 했으나 터미널 운영사들 역시 공간 제약에 따른 비용문제 발생 등으로 조율이 쉽지 않아 최종 닷새로 협의함

» 한편, 해당 대책은 기획재정부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며 중소 수출 기업들에 한해서 적용될 예정임

2) 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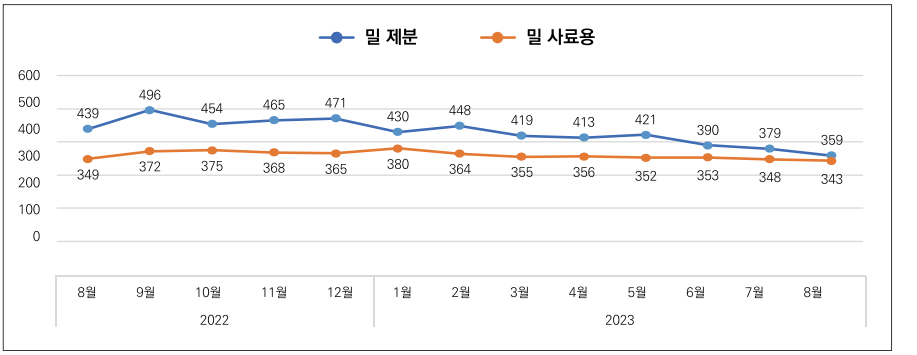
❶ 8월 주요 곡물 수입단가 전년 대비 큰 폭의 하락세 기록[36)]

» 식용 밀의 8월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8.0% 하락한 359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식용 옥수수의 수입단가(308달러/톤)도 전년 대비 29.1% 하락함

- 8월 사료용 밀의 수입단가는 전년 대비 1.7% 하락한 343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사료용 옥수수(320달러/톤)의 수입단가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하락세(-18.6%)를 기록함
- 채유용 콩의 8월 수입단가 역시 전년 대비 15.7% 감소한 594달러/톤을 기록하였으며 대두박의 경우 전년 대비 6.4% 하락한 579달러/톤을 기록함

36)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 국제곡물 관측월보 9월호(2023.08.31.),http://www.krei.re.kr:18181/board/market_trande/view/wr_id/7380/page/1(2023.09.18. 검색)

밀 수입단가 추이



옥수수 수입단가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옥수수	식용	434	428	393	383	367	381	371	356	345	346	339	325	308
	사료용	393	382	364	338	335	336	333	332	334	337	336	332	320

3) 시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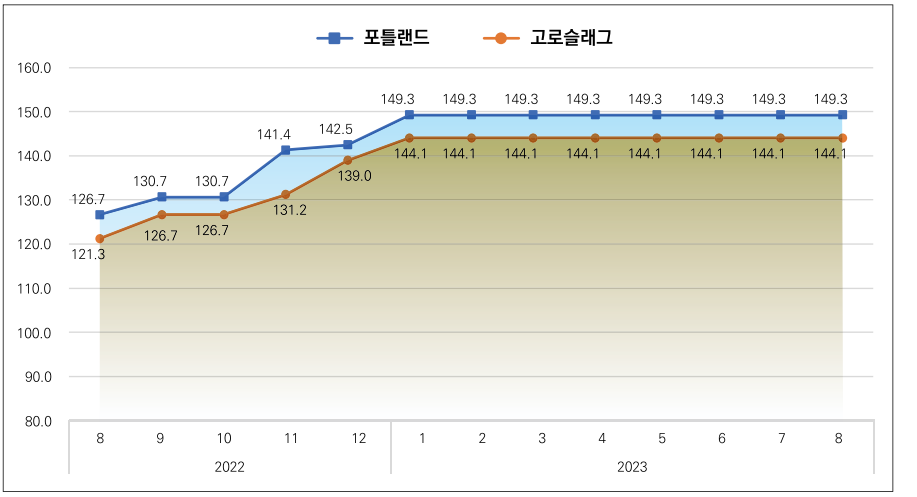
❶ 8월 생산자물가지수 8개월째 보합세 유지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149.3p, 144.1p를 기록함

- 포틀랜드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7.9% 증가, 고로슬래그 시멘트는 전년 동월 대비 18.8% 증가함
- 포틀랜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생산자물가지수는 '23년 1월 이후 8개월 동안 증감없이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시멘트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포틀랜드	126.7	126.7	130.7	130.7	141.4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149.3	0.0	17.9
고로슬래그	121.3	121.3	126.7	126.7	131.2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144.1	0.0	18.8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09.25. 검색)

❷ 철도파업으로 충청북도 지역 시멘트 출하 90% 감소[37)]

» 9월 14일 시작된 철도파업으로 시멘트 공장이 밀집된 충북 북부권의 화물열차 운행률이 30% 미만으로 감소해 충청북도 지역 시멘트 출하량이 평균 대비 90% 감소함

- 단양 소재의 시멘트 공장은 하루 평균 120량의 화물열차가 소요되지만 평균 20량이 배치되고 있음
- 시멘트 업계는 철도파업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를 이용한 육송 출하를 늘리거나 전국 시멘트 저장소(사일로)의 재고를 푸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음

37) 매일일보(2023.09.17.),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08014(2023.09.17 검색)

4) 모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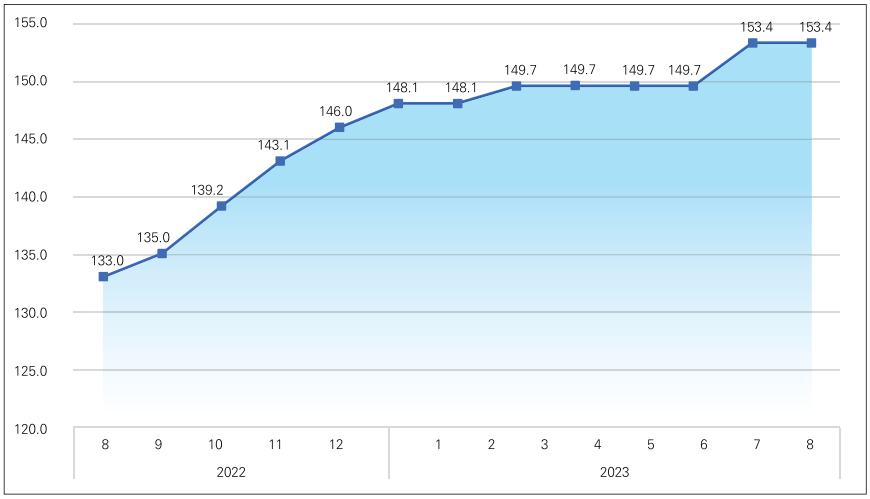
❶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53.4p 기록

» 모래 생산자물가지수는 전월과 동일, 전년 동월 대비 15.4% 증가함

- '23년 3월 이후 4개월간 증감이 없었으나, 7월 증가세를 기록한 이후 8월 다시 보합세를 보임

(단위: 2015년 = 100기준)

모래 생산자물가지수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모래	133.0	133.0	135.0	139.2	143.1	146.0	148.1	148.1	149.7	149.7	1/49.7	153.4	153.4	0.0	15.4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conn_path=I2(2023.09.25. 검색)

❷ 바다골재 채취 감소로 인천지역 바다골재 채취업자 감소[38)]

» 인천지역 바다골재 채취업 13개 사(社) 중 최근 5년간 6개 사가 폐업, '22년 9월 이후 인천지역 바다골재 채취가 전면 금지되면서 추가로 3~4개 사가 폐업할 위기임

- 최근 5년간 인천지역 바다골재 채취업계 종사수는 900명이 감소함
- 바다골재 채취는 '80년대 후반 주택 200만 호 건설사업 본격화에 앞서 하천골재가 감소하자 '84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한 사업이며 매년 전국 골재 수급의 약 10%(2,500만 ㎥)를 유지함
- '17년 바다골재의 비중을 골재수요 대비 5%로 감축하는 내용의 바다골재 공급계획이 수립되면서 '16년 2,860만 ㎥에 달했던 바다골재 채취량은 '17년 1,730만 ㎥, '18년 808만 ㎥로 급감함
- 인천지역 골재 채취 관계자는 인천 옹진군 및 선갑 지역 채취 만료로 인해 수도권 골재 대란이 발생했으며 인천 검단 붕괴 사고도 골재 수급 불균형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 저하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함

38) 대한경제(2023.08.24.), https://m.dnews.co.kr/m_home/view.jsp?idxno=202308230502195820974(2023.09.13 검색)

5) 석탄

❶ '23년 8월 유연탄 가격은 전월 대비 소폭 감소함[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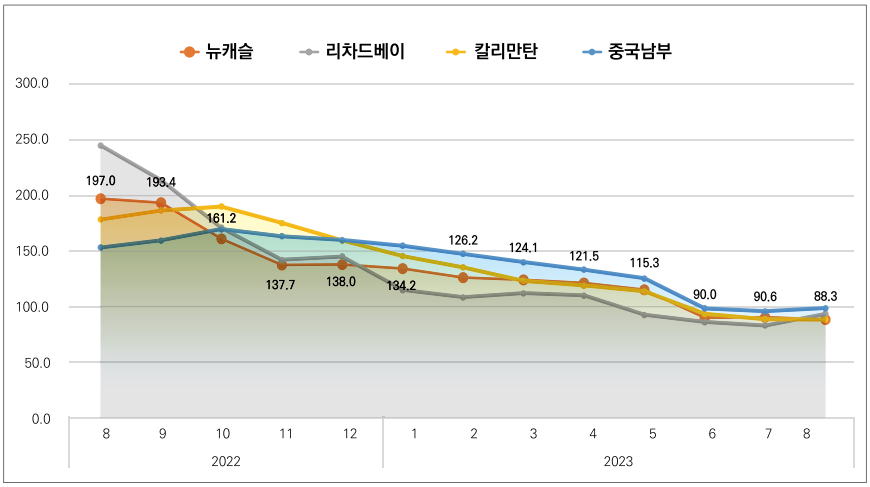
» 호주 뉴캐슬산(5,500kcal/kg, NAR) FOB기준 연료탄 8월 평균가는 88.3달러로 전월 대비 2.5% 감소세를 기록함

- 유연탄 가격은 유가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절성 수요 둔화 우려로 가격하방압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별로는 호주 뉴캐슬산과 인도네시아 칼리만탄산은 각각 2.5%, 0.3% 하락한 반면, 남아공 리차드베이산은 12.7% 상승함(전월 대비 기준)

39)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trend/weekresourcesnews/resources/trendRead.do?se_cd=144(2023.09.24. 검색)

(단위: 달러/톤)

유연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뉴캐슬	197.0	193.4	161.2	137.7	138.0	134.2	126.2	124.1	121.5	115.3	90.0	90.6	88.3	-2.5	-55.2
리차드베이	245.1	213.9	171.0	142.2	145.2	114.9	108.5	112.2	110.0	92.7	86.0	83.1	93.6	12.7	-61.8
칼리만탄	178.5	186.5	190.1	175.3	159.6	145.5	135.5	123.3	119.0	113.7	93.5	88.7	88.5	-0.3	-50.4
중국남부	153.2	159.6	169.8	163.4	159.9	155.0	147.7	140.1	133.4	125.4	98.6	95.8	98.8	3.2	-35.5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❷ 탈석탄법 국회 발의[40)41)]

» 강원도 삼척에서 지어지고 있는 삼척화력발전소 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탈석탄법'이 지난 8월 17일 발의됨

- 삼척화력발전소는 삼척블루파워에서 건설하는 민자 석탄발전소이며, 포스코그룹의 주요 계열사가 주주로 있음
- 지난 '22년 9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 계획을 취소하도록 법을 제정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제기된지 1년여 만에 법안이 국회에 발의됨
- 탈석탄법이라고 불리는 '석탄발전사업의 철회 및 신규 허가 금지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현재 건설 중인 석탄발전사업을 중단하고 이에 따라 손해를 보게 될 사업자 보상과 지역사회와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임
- 해당 법안에는 사업 개시를 신고하지 않은 석탄발전사업에 대해 허가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과 석탄발전사업에 대한 전기사업의 신규 허가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김
- 석탄발전사업자에 대한 전기 사업 허가 철회를 담은 조문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강원 삼척에 지어지고 있는 2,100MW 규모의 민자 석탄발전소 때문임
- 삼척블루파워는 '23년 10월과 24년 4월 각각 1호기와 2호기의 상업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오는 10월 전에 법안이 통과되면 삼척블루파워의 허가는 취소됨

» 그러나 삼척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들은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진행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 철회는 어렵다는 입장임

- 현재 삼척석탄화력발전소에 투자하는 금융기관 32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을 한 11개 기관 중 10개 기관이 투자를 유지하겠다고 밝힘
- 삼척화력발전소는 ESG 관점에서 신규 석탄발전 투자는 하지 않고 있으나, 삼척블루파워의 경우 탈석탄 투자 선언 전에 결정된 사안인 만큼 이를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임

40) 한겨레(2023.08.17.),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04706.html(2023.09.06. 검색)

41) 한겨레(2023.09.07.), https://www.hani.co.kr/arti/economy/finance/1107517.html(2023.09.13. 검색)

6) 철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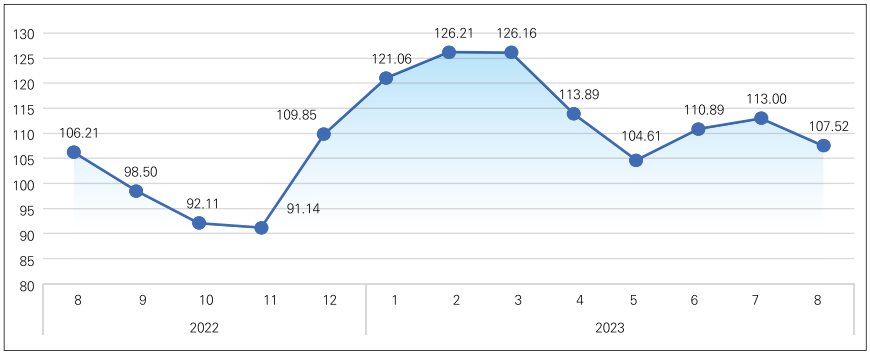
❶ '23년 8월 철광석 가격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한 107.5달러 기록

» '23년 7월 철광석 가격(Fe 62%, 중국 칭다오항 도착기준)은 톤당 107.5달러로 전월 대비 4.8% 하락, 전년 동월 대비 1.2% 증가

- 8월 철광석 가격은 중국의 철광석 초과 공급 및 부동산 위기로 인해 하락세로 전환됨
- 그러나 부동산 위기 등에도 불구하고 8월 중순 이후 중국 정부의 다른 인프라 사업 육성 방안 등이 철광석 수요를 떠받치면서 예상 대비 하락세가 길게 이어지지 않음

(단위: 달러/톤)

철광석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철광석	106.2	98.5	92.1	91.1	109.9	121.1	126.2	126.2	113.9	104.6	110.9	113.0	107.5	-4.8	1.2

주: 62% 분광 중국 칭다오항 도착 기준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mineralprice/ironoreenergy/pricetrend/ironOreEnergy.do(2023.09.14. 검색)

❷ 중국, 철광석 가격 규제[42)]

»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최근 비정상적인 철광석 가격 급등으로 철광석 가격 규제 실시

- 철광석 가격은 8월 초 부동산 파산 위기 등 및 초과 공급 이슈로 가격이 낮아지고 있었으나, 8월 중순 이후부터 철광석 가격이 다시 급등함
- 이에 중국 정부는 철광석 관련 수요업체, 트레이더 및 투기꾼들을 대상으로 악의적인 투기를 강력 단속함

» 철광석 가격 급등은 중국 정부가 철강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 철강 판매를 늘리기 위해 철강업체들이 고로 생산을 늘린 상황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철광석 선물 매수가 급증한 것이 원인인 된 것으로 파악됨

- 또한, 최근 중국 정부의 모기지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및 타 인프라 사업 육성 정책 등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가격 규제로 인해 철광석 가격은 일시적으로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철강 감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철광석 수요가 다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42) CNews(2023.09.12.), http://www.thecommoditie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422(2023.09.14 검색)

7) 기타광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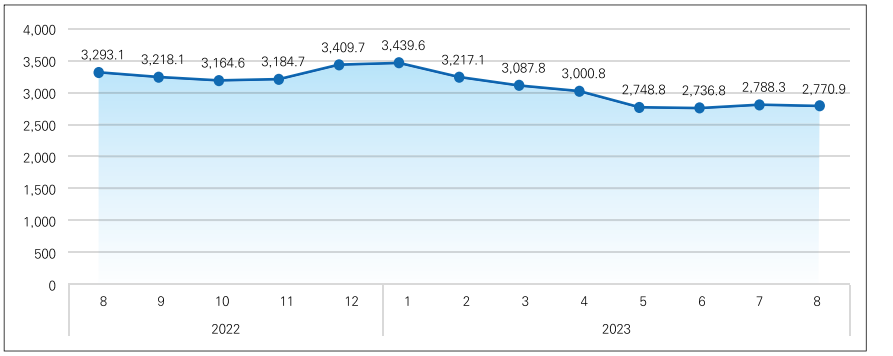
❶ 8월 기준 광물종합지수는 2,770.9p로 전월 대비 0.6% 감소함[43)]

» '23년 8월 광물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6% 감소, 전년 동월 대비 15.9% 하락한 2,770.9p를 기록함

43) 한국자원정보서비스, https://www.komis.or.kr/komis/price/priceStocks/pricestocks/priceStocks.do(2023.09.24. 검색)

(단위: 2016년 = 1,000기준)

광물종합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광물종합지수	3,293.1	3,218.1	3,164.6	3,184.7	3,409.7	3,439.6	3,217.1	3,087.8	3,000.8	2,748.8	2,736.8	2788.3	2,770.9	-0.6	-15.9

주: 광물종합지수는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전반적인 자원시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국내 수입금액 20위권 이내 광종 중 산업전략적 중요광물(동, 니켈, 아연, 리튬 등) 15개를 선정하여 자체 개발한 종합지수로서, 기준시점은 2016년 1월을 1,000으로 함. 매일 발표하며 월별 실적은 일별 데이터의 평균값을 산출함

자료: 한국자원정보서비스

❷ 핵심광물 수급 경쟁 속 떠오르는 아프리카 광물산업[44)45)]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 8월 21일 아프리카 지역의 광물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함

- 아프리카는 전 세계 광물 매장량의 약 30%를 넘어설 만큼 자원이 풍부한 지역으로, 전세계 광물 자원 의존도가 높은 상위 15개국 가운데 10개국이 아프리카에 속하고 있음
- 아프리카 지역 광물의 최대 구매자는 중국으로, 에너지 및 광물 자원 공급망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하는 등 향후 핵심원자재 산업에 중국의 영향력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상함
-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핵심원자재 공급망이 일부 국가에 편중되면서 전세계 주요 국가들은 광물 수급 안정화 및 리스크 감축을 위해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함
- 실제로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을 통해 전세계 핵심원자재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한 정책을 냈고, 동시에 EU나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통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음

» 반면, 아프리카 지역에 풍부한 광물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전력 및 교통 등 인프라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측면도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프리카 지역에서 부족한 광물 가공 및 제품 제조 기술을 이전해 가공·제조 부문의 투자로 진출하거나, 경제개발,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 자유무역협정(FTA)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아프리카 국가와의 협력을 늘려가야 할 것이라고 분석함

44) IMPACT ON(2023.08.23.), https://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7105(2023.09.14. 검색)

4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2023.08.21.), https://keri.koreaexim.go.kr/oe/HPHFOE026M01(2023.09.14. 검색)

8) 목재

❶ 2023년 1~7월 누적 원목 수입량은 126.8만 ㎥로 전년동기 대비 20.1% 감소[46)]

» 국내 건설/건축 침체로 재고 부담이 가중되어 수입물량 감축이 지속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 침체로 인한 건설경기 부진이 목재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을 지속시킴

- '23년 국내 목재 품목별 누적 수입물량은 전년동기 대비 원목은 20.1%, 제재목은 14.9%, 성형목재는 14.0%, 합판은 11.7%, 목재펠릿은 5.2% 감소함

품목(단위)	2023년 누적(1-7월)	2022년 누적(1-7월)	증감률(%)
원목(천㎥)	1,268	1,587	-20.1
제재목(천㎥)	950	1,116	-14.9
성형목재(톤)	47,252	54,941	-14.0
합판(천㎥)	754	854	-11.7
파티클보드(천㎥)	695	816	-14.8
섬유판(천㎥)	134	135	-0.7
목재펠릿(천 톤)	2,133	2,249	-5.2

자료: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08.22.),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8676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9.14. 검색)

❷ 국립산림과학원,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국가특허 동화기업에 기술이전[47)]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8월 국내 목재산업 대표기업인 동화기업과 구조용 파티클보드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기술의 이전 계약을 체결함

- 파티클보드는 국내 재활용 목재를 사용하여 제조하는 목재제품으로 주로 가구, 싱크대 및 인테리어 자재로 사용되며, 이번 특허기술로 만든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강도와 내수성을 보강하여 장기간 수분에 노출되어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는 장점이 있음
- 특히 구조용 파티클보드는 목조주택(경골목구조)의 주요 건축 부재인 덮개재료(벽, 바닥, 지붕용)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
- 현재 목조주택 현장에서 사용되는 덮개재료는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로 매년 약 7만 톤을 전량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정세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제품 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국내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이번 기술이전을 통해 국내 목조건축업계에 고품질 국산 건축부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매년 약 1,000억 원 이상 스트랜드보드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국산 구조용 파티클보드로 대체하면 국내 목재산업의 활성화와 목재의 대량소비를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46) 산림청 해외목재유통정보(2023.08.22.), https://www.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nttId=3186766&bbsId=BBSMSTR_1067&pageIndex=1&pageUnit=10&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dept=&searchWrd=&ctgryLrcls=&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orgId=&mn=NKFS_02_01_11_05&component=(2023.09.14. 검색)

47)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보도자료(2023.09.14.), https://nifos.forest.go.kr/kfsweb/cop/bbs/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Qe0sO1T64lUv96Zg7SPbaX50LP7u8NZgD22tzm3BckErvN4bnOfug0clTwR5I4G5.frswas02_servlet_engine5?nttId=3187449&bbsId=BBSMSTR_1036&pageUnit=10&pageIndex=1&searchtitle=title&searchcont=&searchkey=&searchwriter=&searchWrd=&ctgryLrcls=CTGRY150&ctgryMdcls=&ctgrySmcls=&ntcStartDt=&ntcEndDt=&mn=UKFR_03_03&orgId=kfri(2023.09.14. 검색)

9) 고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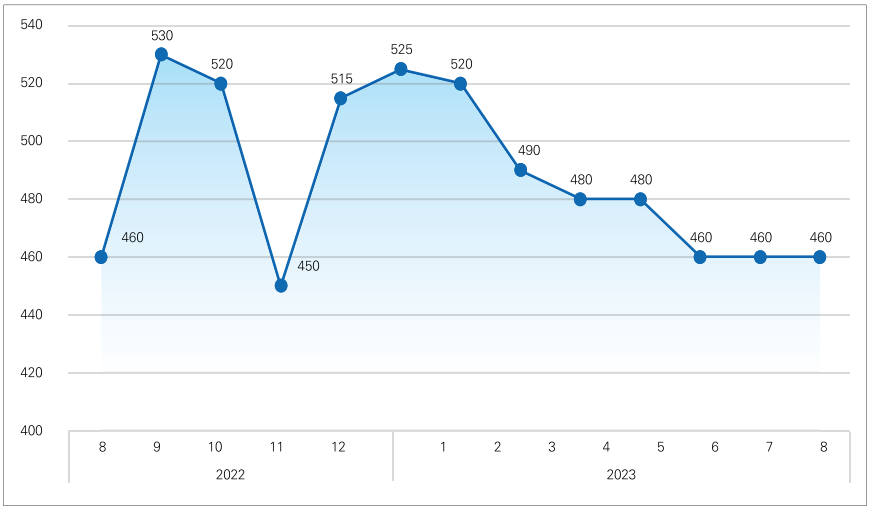
❶ 8월, 국내 고철 가격 보합세 기록

» 국내 8월 생철 가격은 톤당 46만 원을 기록했으며, 이는 전월, 전년 동월 대비 같은 수준임

- '23년 1월 톤당 52만 5천 원을 기록한 생철 가격은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5개월 연속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후, 6월부터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천 원/톤)

고철(생철)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생철	460	530	520	450	515	525	520	490	480	480	460	460	460	0.0	0.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❷ 전 세계 고철 교역량 14.9% 감소[48)]

» 국제재활용국(BIR)에 따르면 '22년 고철 교역량은 9,760만 톤으로 전년 대비 14.9% 감소함

- 각국의 탈탄소화 정책과 함께 고철 글로벌 교역량은 '21년 1억 960만 톤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2년에는 하반기 철강 경기 침체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함

48) 철강금속신문(2023.09.13.),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9/13/PS01091301010030 1B0001.pdf(2023.09.18. 검색)

- 연도별 교역량은 '17년 9,900만 톤, '18년 1억 540만 톤, '19년 1억 40만 톤, '20년 9,930만 톤, '21년 1억 960만 톤, '22년 9,760만 톤을 기록함
- 특히 '22년 고철 교역량의 감소세가 두드러진 지역은 EU, 일본, 튀르키예, 미국 등으로, 수출 측면에서 EU가 전년 대비 9.4% 감소한 1,759만 6천 톤, 일본이 13.6% 감소한 630만 7천 톤을 기록하였고, 수입 측면에서는 튀르키예가 전년 대비 16.5% 감소한 2,087만 6천 톤, 미국이 전년 대비 10.3% 감소한 472만 톤을 기록함
- 한편, 인도는 63.2% 증가한 837만 6천 톤을 수입하였으며, '23년 상반기에도 전년 대비 105.4% 증가한 549만 1천 톤을 기록하는 등 대폭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 7월 인도 북부 루디아나에 연간 75만 톤 규모 전기로를 착공, 남부에도 전기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 등 적극적으로 생산능력을 확대하고 있음[49)]

49) 철강금속신문(2023.09.18.),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9/18/PS0109180101003O1B0001.pdf(2023.09.18. 검색)

10) 철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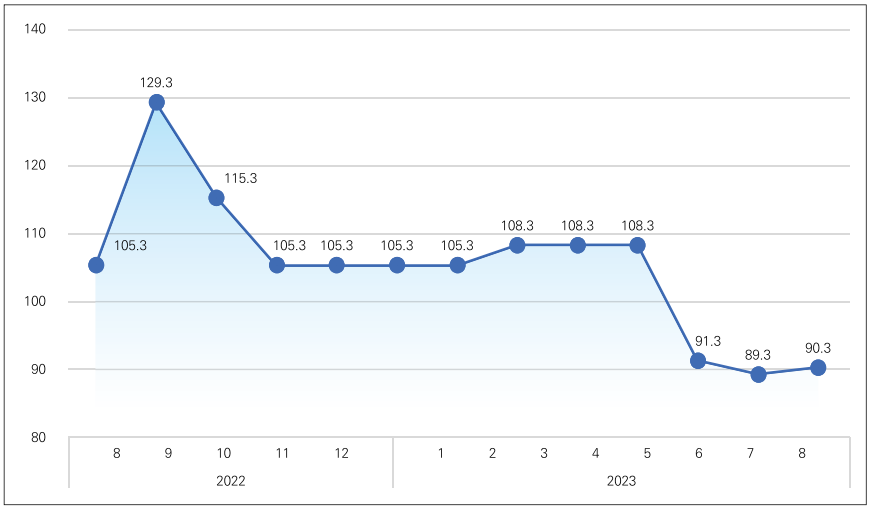
❶ 국내 열연코일 가격 전월 대비 소폭 증가

» 8월 열연코일(3.0×4×8mm) 가격은 전월 대비 1.1% 증가, 전년 동월 대비 14.2% 하락한 톤당 90만 3천 원을 기록함

-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톤당 100만 원대를 유지하던 열연코일 가격은 지속된 수요 부진과 계절적 비수기 진입 영향으로 6월 90만 원대 초반까지 급감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단위: 만 원/톤)

열연코일 연간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열연코일	105.3	129.3	115.3	105.3	105.3	105.3	105.3	108.3	108.3	108.3	91.3	89.3	90.3	1.1	-14.2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자재가격정보

❷ 중국, 주요 철강 생산지 생산 억제 조치 전년 대비 완화 전망[50)]

» '23년 중국 정부가 부과한 전반적인 생산 억제 조치가 전년 대비 비교적 완화되어, 올해 4분기에는 중국 철강 가격의 상승세가 제한될 것으로 분석됨

- 최근 후난성과 산시성은 '23년 철강 생산량 감축 계획을 발표했으며, 후난성은 전년 대비 190만 톤, 산시성은 300~400만 톤 감산할 계획임
- 그러나 두 성 모두 상반기에 이미 전년 동기 대비 약 3.0% 낮은 수준의 조강 생산량을 기록했기에 연간 생산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추가 감산량이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중국 최대 철강 생산지인 허베이성은 '23년 상반기 조강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4.5% 증가했으며, 9월 둘째 주까지 정부의 감산 명령을 받지 못한 상태임
- 중국 철강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9월에 허베이성 등이 감산 계획을 발표하더라도 현재 감산이 느슨하게 진행되는 시장 분위기에 따라 제철소들이 엄격하게 감산을 시행할지 불확실하며, 남은 기간 전년 수준으로 생산량을 감축하기에는 시간적인 여건도 어려운 상황임

❸ 튀르키예 철강 생산, 지진 복귀 14개월 만에 증가[51)]

» 튀르키예철강생산자협회(TCUD)에 따르면, 지난 7월 튀르키예 조강 생산량은 전년 동월 대비 7.7% 증가한 290만 톤을 기록하여 14개월 만에 증가세를 나타냄

- 에너지 대란 완화와 제강사의 공장 가동 재개, 대지진 재건사업 추진 등으로 조강 생산량이 회복하고 있으며, 7월 누적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한 1,880만 톤을 기록하여 세계 조강 생산 8위를 차지함
- 7월 누적 완제품 소비는 자동차를 포함한 제조업 경기 회복과 인프라 투자 확대, 지진 복구사업에 따른 건설재 수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증가한 2,330만 톤을 기록함
- 7월 누적 완제품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4.2% 감소한 530만 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2.0% 증가한 1,100만 톤을 기록함

50) 철강금속신문(2023.09.11.), https://p.snm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07374(2023.09.15. 검색)

51) 철강금속신문(2023.09.18.), http://pdf.snmnews.com/PDF/REAL/2023/09/18/PS01091801010030 1B0001.pdf(2023.09.18. 검색)

11) 자동차

❶ 7월 자동차 내수 판매량은 13만 6,066대로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52)]

»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7월 내수는 신차효과에도 불구하고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경기침체 우려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5.0% 감소함

- 국산차는 전년동월 대비 5.8%, 수입차는 0.6% 감소함
- 친환경차 판매는 전년동월대비 11.8% 증가한 42,240대이며, 국산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로 하이브리드는 29.7% 증가한 반면, 전기차는 전년동월대비 12.4% 감소함

» 수출은 미국 등 북미시장을 중심으로 견조한 글로벌 수요와 국산 친환경차 인기로 전년동월 대비 3.2% 증가한 229,746대를 기록함

- 친환경차 수출은 10.6% 증가한 59,897대이며, 전기차 수출이 전년동월대비 36.9% 증가한 28,013대를 기록함
- 완성차 수출액은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한국산 친환경차·SUV 등 고부가가치 차량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전년동월 대비 15.0% 증가한 59억 달러를 기록하여 13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달성함
- 부품 수출액은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 완화 및 대기수요 해소에 따른 판매량 증가로 하계휴가 등 계절요인에도 전년동월 대비 0.5% 감소한 20억 달러로 보합세를 유지함

» 생산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따른 수출 증가로 르노코리아를 제외한 모든 업체의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한 352,972대를 기록함

- 해외생산은 미국, 중국, 멕시코 등의 생산 감소로 전년동월 대비 0.7% 감소한 279,901대를 기록함

52)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08.30.),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93&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09.14. 검색)

'23.7월 국내 자동차산업 동향

(단위 : 대, 백만$, %)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률		
	연간	7월	1~7월	6월	7월	1~7월	전월비	전년동월비	1~6월
내수	1,684,113	143,293	950,898	162,699	136,066	1,029,803	-16.4	-5.0	8.3
(국산차)	1,384,722	121,852	790,801	134,063	114,746	874,067	-14.4	-5.8	10.5
(수입차)	299,391	21,441	160,097	28,636	21,320	155,736	-25.6	-0.6	-2.7
수출	2,300,333	222,654	1,295,679	240,327	229,746	1,651,166	-4.4	3.2	27.4
(완성차 수출액)	54,067	5,134	29,471	6,229	5,904	41,557	-5.2	15.0	41.0
(부품 수출액)	23,316	2,033	13,822	1,991	2,023	13,651	1.6	-0.5	-1.2
생산	3,757,049	324,306	2,103,362	370,293	352,972	2,550,668	-4.7	8.8	21.3

자료: 자동차산업협회 산업동향 보고서(2023.08.30.), https://www.kama.or.kr/NewsController?cmd=V&boardmaster_id=industry&board_id=12293&menunum=0004&searchGubun=&searchValue=&pagenum=1(2023.09.14. 검색)

12) 잡화

❶ '23년 8월 ISM(미국 공급자관리협회)의 PMI 지수[53] 47.6p로 6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10개월 연속 제조업 경기 위축[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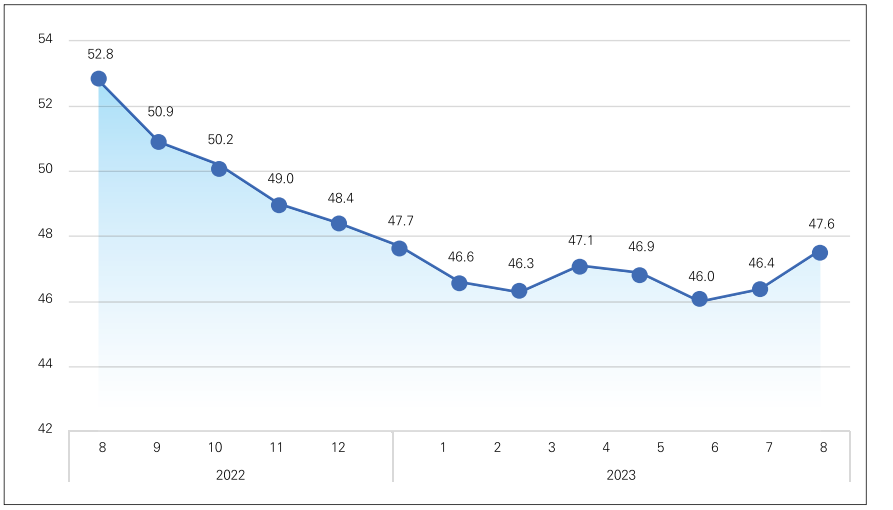
» 8월 생산(46.4p → 47.6p)과 고용(44.4p → 48.5p)의 지수 개선이 미국 제조업 부문의 회복을 주도함

- 미국의 8월 제조업 생산부문은 전월 대비 반등(+1.2p)한 반면 신규 주문은 전월 대비 0.5p 감소함
- 지난 11월부터 미국의 PMI 지수는 지속적으로 50p 미만을 유지했는데 이와 같은 불황은 세계 금융위기 이후 '07년부터 '09년까지 발생한 미국의 불황 이후 가장 긴 기간임

53) 미국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PMI): 매달 400개 이상의 구매, 공급 관련 기업의 중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출함, 경제를 파악하는 선행지표로 지수가 50을 초과하면 제조업 경기의 확장을 의미하고 50 미만은 경기의 축소를 의미함

54) Trading Economics(2023.09.01.), 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e (2023.09.17 검색)

미국 PMI(구매관리자 지수) 추이



자료:https://tradingeconomics.com/united-states/business-confidence

13) 유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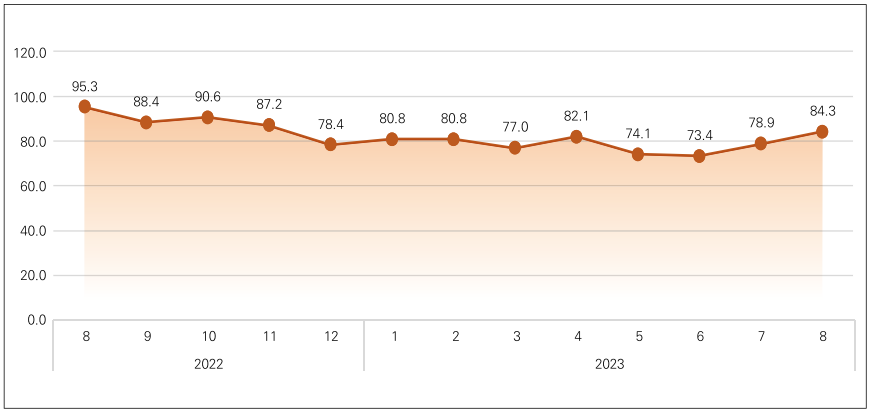
❶ 8월 국제유가, Dubai, Brent, WTI 모두 전월 대비 상승

» 전반적인 하락세를 이어오던 유가는 지난 6월 이후 반등하면서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배럴당 평균 84.3달러를 기록함

- 급등했던 유가가 긴축 장기화로 완만한 하락세를 보여왔으나 휴가철을 맞아 항공여객 수요가 증가하면서 반등함
- 러-우 전쟁에 따른 제제와 OPEC+의 감산연장 발표 등으로 당분간 증가세가 예상됨

(단위: US$/bbl, %)

국제 원유 가격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Dubai	96.6	91.0	91.2	86.3	77.2	80.4	82.1	78.5	83.4	75.0	75.0	80.5	86.5	7.5	-10.5
Brent	97.7	90.6	93.6	90.9	81.3	83.9	83.5	79.2	83.4	75.7	75.0	80.2	85.1	6.2	-12.9
WTI	91.5	83.8	87.0	84.4	76.5	78.2	76.9	73.4	79.4	71.6	70.3	76.0	81.3	7.0	-11.1
평균	95.3	88.4	90.6	87.2	78.4	80.8	80.8	77.0	82.1	74.1	73.4	78.9	84.3	6.9	-11.5

자료: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 유가동향 국제유가,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8.14. 검색)

❷ 국제에너지기구(IEA), 6월 세계 석유 수요 최고치 기록[55]

» 여름철 항공 수요, 전기발전용 석유 수요, 중국의 석유화학 산업활동 증가로 6월 세계 석유 수요가 1억 300만 b/d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 중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세계 석유 수요가 증가함
- IEA는 '23년 세계 석유 수요 추정치를 전년 대비 220만 b/d 증가한 1억 220만 b/d로 전망하였으며, 중국이 '23년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
- 다만, '24년에는 경제 부진과 엄격해지는 연비 기준, 전기자동차 사용 증가로 세계 석유 수요 증가분이 100만 b/d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함

» 세계 석유 수요가 코로나 이전 기록 경신에도 불구하고 8월 세계 석유 정제 투입량은 '19년 수준 여름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함

- 7월 사우디아라비아의 급격한 원유 생산 감소로 석유 생산량은 OPEC+이 전월 대비 120만 b/d 감소한 5,070만 b/d를 기록했으며 비OPEC+이 전월 대비 31만 b/d 증가한 5,020만 b/d를 기록하면서 세계 석유 공급량은 91만 b/d 감소한 1억 90만 b/d를 기록함
- '23년 세계 석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150만 b/d 증가한 1억 150만 b/d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며, '24년 세계 석유 공급량은 OPEC+는 16만 b/d 증가에 그치는 반면 비OPEC+가 13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많은 정유사들이 정제 투입유종 전환, 정전 및 폭염 등으로 차질이 발생하면서 석유제품 생산량 증가가 세계 석유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해 석유 제품시장이 타이트해짐
- 특히, 고유황 중질유를 주로 공급하는 중동 국가들의 생산량 감소로 정유사들은 정제 투입 원유를 저유황 경질유로 전환하고 있으며, 고유황 중질유에서 주로 생산되는 고유황 중유(HSFO) 공급이 매우 타이트해짐

» IEA는 '23년 하반기 OPEC+ 생산량 감산 및 거시경제 개선과 세계 석유 수요 증가로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 IEA는 OPEC+의 현재 생산량 쿼터가 유지될 경우 3분기에 220만 b/d, 4분기에 120만 b/d의 원유 재고 감소가 일어날 수 있다고 언급함
- 사우디아라비아 등 OPEC+ 생산량 감산이 고유황 중질원유 시장에 타격을 주면서 두바이유가 브렌트유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음

55)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8.1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9.15. 검색)

❸ 미국, 베네수엘라 석유부문 제재 완화 검토[56)]

» 미국의 제재로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제약을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22년 말부터 제재가 일부 완화된 상황임

- 세계 최대 원유 매장국인 베네수엘라의 석유산업은 부정 선거와 독재를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19년 제재 실시 이후 만성적인 투자 부족과 정치 부패, 부실 운영 등으로 수년간 쇠퇴해옴
- '22년 베네수엘라의 여야 간 협의 재개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22년 11월 셰브론(Chevron)사에 베네수엘라 원유 및 석유제품 생산과 미국 수출을 허가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등 경제제재를 일부 완화함

»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베네수엘라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다면 제재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힘

- 미국은 유럽 및 기타 국가에서도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재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재 완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이란, 러시아 등 일부 국가들과 베네수엘라 간의 석유 거래 제한만 유지하는 수정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알려짐
-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 완화 시, 글로벌 석유회사들의 투자 확대 및 국영석유회사인 PDVSA의 생산회복 계획 추진 등으로 원유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최근 제재 대상국인 이란 및 베네수엘라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어 향후 제재 완화로 두 국가의 석유 생산이 확대되면 타이트한 석유 수급은 다소 완화될 전망임

❹ 사우디·러시아 자발적 공급 감축 3개월 추가 연장[57)58)]

» 9월 5일, 사우디와 러시아는 당초 9월로 예정된 자발적 공급 감축을 '23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함

- 사우디는 100만 b/d 규모의 독자감산을 '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하면서 사우디의 원유 생산은 연말까지 2년래 저점 수준인 900만 b/d를 유지하게 되었으며, 러시아도 30만 b/d 규모의 자발적 수출 감축을 '23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함
- OPEC+는 '22년 11월부터 200만 b/d 공식 감산을 시작했으며, 러시아는 올해 3월 50만b/d, 사우디 등 일부 산유국은 올해 5월부터 120만 b/d의 자발적 감산을 시작함
- 이후 사우디(7월, 100만 b/d 감산)와 러시아(8월, 50만 b/d 수출 감축 → 9월, 30만 b/d 수출 감축 조정)가 자발적으로 추가 공급 감축을 발표하고 1개월씩 감축 기한을 연장해옴
- 당초 시장은 사우디와 러시아가 10월까지 1개월 자발적 공급 감축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상보다 긴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함

56)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8.28),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9.15. 검색)

57)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9.06),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9.15. 검색)

58) 한국석유공사 페트로넷(2023.09.14), https://www.petronet.co.kr/main2.jsp(2023.09.15. 검색)

- OPEC+는 석유시장 통제를 원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올해 4분기 150만b/d 이상의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연말 유가는 배럴당 95달러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임

» IEA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공급 감축 연장으로 '23년 4분기까지 상당량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사우디와 러시아의 공조를 비판함

- IEA는 9월 월간 보고서에서 '23~'24년 세계석유수요 증분 전망을 각 220만 b/d, 100만 b/d로 전월 전망에서 대체로 유지함
- '23년 수요 증가는 중국, 항공 및 석유화학 원료 부문, '24년에는 팬데믹 이후 수요 회복 영향 반감과 전기차 보급 등의 영향으로 증분 규모가 둔화될 것으로 평가함
- IEA는 '23년 하반기 약 120만 b/d 규모의 공급 부족 발생을 예상했으며 8월 세계 석유재고가 7,600만 배럴 감소해 13개월래 저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함
- 한편, IEA는 월간 보고서에서 사우디와 러시아의 동맹에 대해 석유시장에 있어 강력한 도전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국가의 공급 감축 연장으로 4분기까지 상당한 공급 부족이 고착화될 것이라고 비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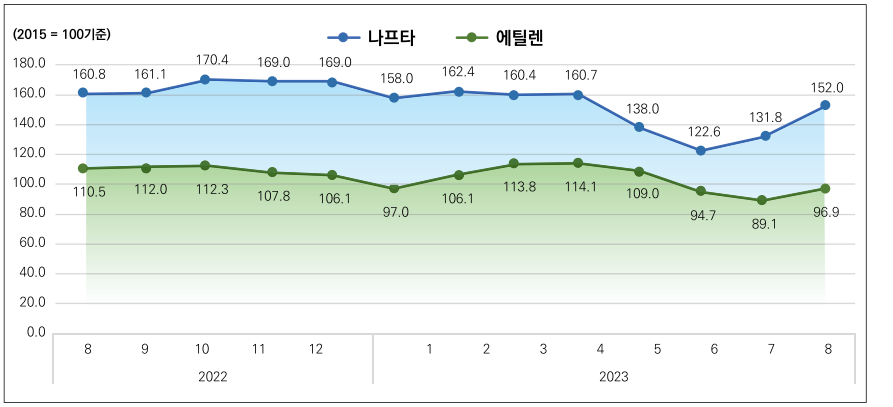
14) 화학공업생산품

❶ 8월 생산자물가지수, 전월 대비 나프타 및 에틸렌 상승

» 유가 상승으로 나프타 생산자물가지수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상승하고 있으며, 에틸렌 생산자물가지수도 같이 상승하고 있음

- 최근 생산자물가지수는 나프타가 6월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으며, 에틸렌은 7월 저점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함
- 중국 석유화학공장 신규 가동에 따른 경쟁 심화 및 글로벌 경기둔화로 업황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

생산자물가지수 추이



구분	2022년					2023년								증가율(%)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나프타	160.8	161.1	170.4	169.0	169.0	158.0	162.4	160.4	160.7	138.0	122.6	131.8	152.0	15.3	-5.5
에틸렌	110.5	112.0	112.3	107.8	106.1	97.0	106.1	113.8	114.1	109.0	94.7	89.1	96.9	8.8	-12.3

자료: 국가통계포털 생산자물가지수(원자료: 한국은행 생산자물가조사),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01&tblId=DT_404Y016&vw_cd=MT_ZTITLE&list_id=P2_301002&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conn_path=MT_ZTITLE(2023.09.24. 검색)

❷ 업황 악화와 중국의 차이나 리스크 악재로 수출 활로 모색가[59)60)]

» 중국 부동산발 위기론이 커지면서 석유화학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임

- 중국의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촉발한 채무불이행 위기로 중국 경기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옴
- 중국은 세계 석유화학제품 최대 수요처로서 경기 부진은 국내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우리나라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작년 22.8%에서 올해 1분기 19.5%로 낮아졌으나 아직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석유화학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월 -18.3%, 3월 -25.1%, 4월 -23.8%, 5월 -26.3%, 6월 -22.0% 등으로 감소했으며, 중국 내 시황 악화 등 수요가 줄면서 동 기간내 중국 수출이 더 크게 감소(2월 -29.5%, 3월 -37.9%, 4월 -23.3%, 5월 -23.6%, 6월 -21.4%)함

» 석유화학 업체들은 고부가가치 품목 중심의 신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출 활로를 모색하고 있음

- LG화학은 지분 매각, 사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신사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올해 체외진단용 의료기기 사업을 매각하고 양극재 설비·부지 매각도 검토하고 있으며, 첨단소재 부문 투자와 이차 배터리에 방점을 둔 첨단소재 부문에 대한 전략적 투자도 지속될 전망임
- 한화솔루션은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동력을 준비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매각 및 설계·구매·시공(EPC)을 통한 발전 사업과 미국 시장 중심의 태양광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
- 롯데케미칼은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옛 일진머티리얼즈)를 인수하는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기업 가치를 올리고 있음
- 금호석유화학은 전기차 소재 중심의 신사업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으며, 전기차 배터리에 쓰이는 CNT(탄소나노튜브)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기차 소재 관련 생산시설 확충과 전기차용 타이어에 주로 사용되는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SSBR) 증설을 추진하고 있음

❸ 국내 석유화학 4사, 석유화학공장 가동률 지속 감소[61)62)]

»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 등 국내 석유화학사들은 올해 상반기 공장 평균 가동률을 하향 조정함

- 올해 상반기 석유화학 시황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주요 석유화학사들은 가동률을 일부 낮췄으며, 평균 가동률은 최근 10년 새 최저 수준임
- 중국의 리오프닝 효과가 낮아 불투명한 하반기 시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공장 가동을 완전 중단할

59) 핀포인트뉴스(2023.08.22.), https://www.pinpoin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65(2023.09.15. 검색)

60)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8.23.),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756(2023.08.15. 검색)

61) 파이낸셜뉴스(2023.08.23.), https://www.fnnews.com/news/202308231806151576(2023.09.15. 검색)

62)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8.24.),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759(2023.09.15. 검색)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가동률만 줄임

※ 석유화학 공장은 가동이 한 번 중단되면 안정적으로 재가동하기까지 최소 2주 이상이 걸림

» 하반기 석유화학 시황 반등이 쉽지 않을 전망으로 '상저하저' 시황 전망 분위기가 증가하고 있음

- 올해 초,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 리오프닝과 전방 산업 회복 등으로 석유화학 업계 시황이 '상저하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보다 적은 중국 리오프닝 효과로 인해 '상저하저'를 전망하는 분위기가 늘어나고 있음

국내 석유화학 4사 석화공장 평균 가동률 추이

(단위: %)

구분	'19년 상반기	'20년 상반기	'21년 상반기	'22년 상반기	'23년 상반기
평균 가동률	91.3	86.4	92.3	85.8	79.8

주: 석유화학 4사는 LG화학,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 한화솔루션을 말함

자료: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2023.08.23.), https://www.fnnews.com/news/202308231806151576(2023.09.15. 검색), 한국석유화학협회(2023.08.24.), https://www.kpia.or.kr/member-company-information/member-company-trends?tpf=board/view&board_code=20&code=13759(2023.09.15. 검색)

집필 내역

연구책임자

이기열 항만수요예측센터장

연구진

최석우 항만수요예측센터 부연구위원
김영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신정훈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수영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이화섭 항만수요예측센터 전문연구원
조성현 항만수요예측센터 연구원

감 리

김범중 항만연구본부 명예연구위원

항만과 산업

국내·외 항만 및 품목 동향

발행일 2023. 9. 25

편집겸발행인 김종덕 원장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항만연구본부 항만수요예측센터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301번길 26(동삼동)
전화 051) 797-4800 | 팩스 051) 797-4810
www.kmi.re.kr

편집디자인 공감
전화 070-4407-6252 www.grokw.net

KOREA MARITIME INSTITUTE